



미국 8월 고용지표 부진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9월 6일 미 노동부는 8월 비농업부문 일자리가 9만 6,000개 증가에 그쳤다고 밝혔으며, 실업률은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8%대를 상회함.
 -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2011년 월평균 15만 3,000개 증가하였고 2012년 1/4분기에도 22만 5,000개 증가하였으나 2/4분기 들어 9만 5,000개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후 8월에도 9만 6,000개 증가에 그침.
 - 임금이 높은 제조업 일자리는 1만 5,000개 감소한 반면 소매업과 같은 저임금의 일자리가 6,100개 증가하였으며, 주간 평균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각각 34.4시간, 23.52달러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.
 - 8월 실업률은 7월 8.3%에 비해 0.2%p 하락한 8.1%를 기록하였는데, 이는 구직 포기자와 은퇴자가 36만 6,000명이나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63.5%를 기록함.

- 경제전문가들은 고용지표 부진이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2013년 재정절벽 우려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연준 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.
 - 경제전문가들은 고용지표 부진이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따른 수출 둔화와 함께 의회가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대규모 지출 삭감 및 세제혜택 중단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함.
 - 지난주 버냉키 연준의장은 미국 경제상황이 만족할 만한 수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, 8월의 부진한 노동시장 지표가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연준 회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
(USA Today, 9/8)